

창립 23주년 맞이한 오랜 전통의

마산지부

- 취재 : 조진현 -

협회는 실제로 적지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농가 중에서는 협회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협회에서 주는 도움은 조합이나 협업체, 단지등과 같이 실제 눈에 보이는 수익을 올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나 밀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협회자체의 대응책 등과 각종 대중매체에서의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양돈농가의 지위향상, 정부 상환금의 연장 건의 등 양돈인들의 권익을 위해 협회는 항상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런 의도를 갈무리 하면서 중앙회에서는 거리상

으로 멀지만 남부 영남 지역에서 (주)부광, (주)대성 등 수출중심의 육가공업체의 잇단 도산속에도 김해지부와 함께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닌 마산지부를 이번 지부탐방의 목적지로 잡았다.

매년 5월 “마산 시민의 날”때 무료 시식회 개최

올해 23주년을 맞이하는 본회 마산지부는 오랜전통을 가진 지부답게 튼튼한 임원진과 재정을 바탕으로 활발한 돼지고기 소비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매월 세미나를 겸한 월례회를 가지는 등 많은 노력으로 그 지역의 양돈인들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부에서는 매년 5월 ‘마산 시민의 날’ 행사기간 5일동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예산 50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의 경우 무료 돼지고기 요리 시식회를 뷔페식으로 같이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수의사, 사료회사, 제



▲우로부터 조봉희 지부장, 변윤옥씨, 임해용 총무, 이종렬 감사

약회사 등의 양돈관련인들과 함께 사양관리, 시설, 분뇨처리 등 각종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며 이외에도 변화가나 시장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활발한 소비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사진>

지부는 지금으로부터 22년전 1975년 7월 8일 양돈 사육가 3인이 발기 8명의 회원으로서 창립된 이후 초대 故 권오성 지부장을 비롯하여, 방기언, 최상백, 안판영, 하오조, 김준수 전임 지부장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현재 조봉희 지부장 또한 지부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임원의 구성

은 전임 지부장 여섯명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부지부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들은 지역별로 나뉘어져 각 지역의 소식과 양돈농가의 길·홍사 등을 처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마산지부는 '96. 1월 함안지부의 분립으로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지부 지역으로 맡고 있으며, 산하에 한약제를 사용하여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상록 영농법인과, 흑돼지를 사육하여 수익을 높이는 진동 영농법인, F1 돼지를 생산하고 직판장을 운영하는 양돈협업단지를 두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칼라사진이 포함된 회원수첩을 제작하여 전 회원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시장과, 올해는 부시장과 직접 면담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 시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지역 양돈농가들이 시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운영위원 오희석씨

전체 돼지 생산량의 70%가 수출돈, 안정된 유통체제 확립돼야

조봉희 지부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중간상인에게 돼지 출하시 '관' 단위로 출하하지 않고 'kg' 단위로 정확하게 출하한다며 이것은 우리지부가 자랑할 만 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중간상인이 명확하지 않은 관단위로 돼지를 사가면서 시세에 따라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였던 것을 80년 초반 지부에서 무단한 노력으로 상인들의 시세에 따르지 않고 지부에서 부산·경남의 격락시세를 이용 시세를 결정·조정하고 돼지 생체를 kg단위로 정확하게 농가에서 상인에게 출하하도록 하여 농가의 이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령, 함안, 고성 등에서도 지부에서 결정한 이 시세를 이용하여 출하할 정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싶은 사항은 어떤 것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현재 수입



▲각계 양돈관계자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한 지부 20주년 창립기념행사

돼지고기가 상표없이 공공연히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다. 돼지고기도 한우나, 일본의 돼지고기처럼

국산돼지고기와 수입돼지고기를
분별해서 판매하든지 수입전문 판매
점을 운영해야만 할 것이며, 최소한
학교 급식에서만이라도 국산돼지고기
를 사용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수입고
기에 입맛을 들여 국산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바다를
낀 수출 자유지역이 있고 돈육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가깝다는 장점 때문
에 3~4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수출돈 생산이 이제 전체 돼지 생산
량의 70%정도가 되었고 이런 상황
에서 부광 등 잇단 수출 육가공업체의
파산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경남지역의 양돈인들을

위해 유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養豚**

■ 토종 돼지 분양 ■

모든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육질과 맛이
일품인 토종돼지를 분양합니다.

• 분양돈 종류

임신돈, 종돈, 후보돈, 자돈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래리

TEL : (0562)72-2198 (야간)74-3281



※ 문의전화는 아침 · 저녁에 통화가능